

그리스도인의 자유

로마서 7:18-25

자유는 적극적인 의미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역사를 거치며 조금 달라졌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현실에서는 능력의 한계로, 윤리적인 한계로 인해 자유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정한 자유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진리가 자유하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인식하는 자유와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매여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죄에 해방되었습니다. 죄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수 진리는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로 이끌었습니다. 세상의 규칙은 인과를 따릅니다. 좋은 일을 상 받고, 잘못된 일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할 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당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예수 진리의 자유함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죽어있었으나 예수님을 만나 죽음에서 벗어났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로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악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죄의 행동을 하는데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행동을 하는 우리들을 여전히 부르시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취소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를 세상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